



Analyst 신서정 · 02-3773-9978 · seojeong@sk.com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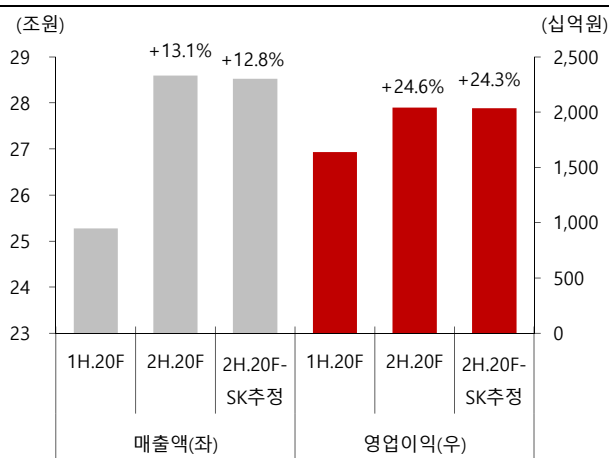
# Issue Comment

- ✓ 건설업 ROE 개선분 감안시 여전히 밸류에이션 업사이드 기대
- ✓ 상반기보다 두드러질 하반기 이익 모멘텀 (OP +24.3%예상)
- ✓ 여전히 기대되는 정책모멘텀과 각 사들의 Bottom-Up 이벤트

## 건설업종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업사이드가 남아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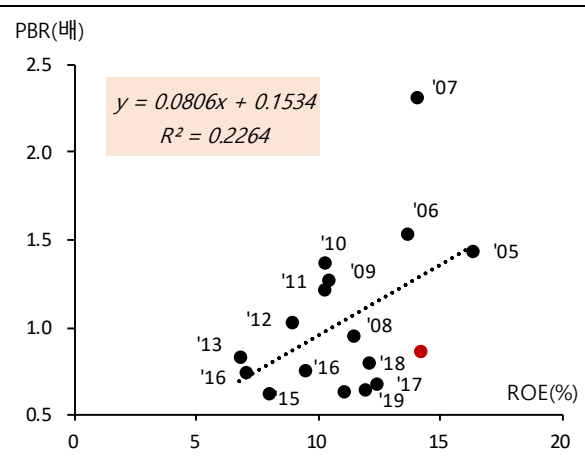
- 2021년 5월까지 건설업종은 +27.6의 수익률 기록, KOSPI 대비로 보더라도 +18.2%를 기록한 셈
- 각 건설사별 YTD 수익률을 보더라도 현대건설 +50.1%, 삼성엔지니어링 +47.4%, GS건설+19.3%, 대우건설 +72.2% DL 이앤씨 +8.2%를 기록함, 사실상 DL 이앤씨를 제외하고서는 모든 건설사가 KOSPI 대비 압도적인 아웃퍼폼
- 건설업종 전반적인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 있는 타이밍이지만, 여전히 하반기에도 Overweight Call 을 드리는 바임
- 근거는 1) 주택시장의 호황기 지속 2) 해외 시장 지표 개선 3) 각 사들의 Bottom-Up 이벤트 임
- 단순 하반기 실적만 놓고 보더라도 상저하고 연출 예상 (하반기 매출액 상반기 대비 +12.8%, 영업이익 +24.3% 전망)
- 밸류에이션의 경우 단순 2020년, 2019년 대비로 비교하기 보다는 건설사들의 펀더멘탈 및 기초체력의 변화분을 같이 봐야함
- 건설업종의 12개월 선행 ROE는 14%수준으로 예상하며 이는 '19년, '20년 대비 개선된 모습
- 각 기업별로 보더라도 향후 3년 이상 실적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함, 특히 주택부문 중심으로 외형성장과 이익률 개선 기대
- 하반기에도 여전히 기대되는 정책 모멘텀과 이를 기반으로 특히 대형건설사 중심으로 멀티플의 추가적인 리레이팅이 기대됨
- 더불어 각 사들의 신성장동력에 대한 가시화까지 병행된다면 여전히 건설업종에 관심을 둘 만한 이벤트들이 다소 있을 것

1H21 건설업 매출액, 영업이익 추정



자료 : Quantwise, SK 증권

건설업종 ROE-PBR 매트릭스



자료 : Quantwise, SK 증권

-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-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투자판단 3 단계 (6개월 기준) 15%이상 → 매수 / -15%~15% → 중립 / -15%미만 → 매도